

한국도로교통공단, AI 기반 교통·재난안전 서비스 마련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디케이테크인 ‘긴급 교통·재난정보의 AI 기반 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교통·재난정보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AI기반 민간 협력형 서비스 구축



한국도로교통공단-디케이테크인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임채유 방송본부장(우)과 강현진 부사장(좌)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AI 기술을 활용해 긴급 교통·재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마련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tbn교통방송은 8월 20일(목) 디케이테크인 본사에서 디케이테크인과 ‘긴급 교통·재난정보의 AI 기반 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tbn교통방송이 보유한 긴급 교통·재난정보를 디케이테크인의 AI 기술로 분석해 국민이 음성 AI를 통해 필요한 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운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AI음성명령을 통해 주변 교통상황과 긴급 교통정보, 재난·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연내 제공할 목표로 개발해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 임채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교통방송의 교통·재난 등 안전 데이터를 디케이테크인의 우수한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 속으로 확장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케이테크인 강현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tbn교통방송의 신뢰도 높은 교통·재난정보에 디케이테크인의 AI 기술을 더해,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tbn교통방송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교통·재난안전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디케이테크인은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고객을 위한 IT서비스와 AI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담당 부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방송관리처	책임자	처 장	오은석 (033-749-5330)
		담당자	차 장	이준상 (033-749-5332)